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 나타난 지배자의 공감의 양상과 인간학적 의미*

-공감을 바탕으로 한 초월적 가치실현을 중심으로

한지원**

〈차 례〉

1. 들어가며
2.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의 전개 양상과 공감의 구조
3. 공감을 바탕으로 한 초월적 가치실현의 존재로서의 인간
4.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구비설화 <임금 감동시킨 음식>을 통해 지배자의 피지배자를 향한 공감과 그로 인해 실현되는 초월적 가치 및 인간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 이야기는 왕미행설화의 대표적인 숙종설화중 하나이다. 숙종설화의 공통적인 주제로 볼 수 있는 ‘왕이 능력 있고 선량한 사람을 발천(發闡)하기 위해 평복으로 변장하고 민간에 다닌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이러한 숙종설화라는 대표적인 개념보다는 개별 설화 내의 서사를 살펴봄으로써 설화 향유자들이 이야기를 통해 후대에 전하고자 소망하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했다. 백성의 윤리적 가치실현은 유교 국가의 백성된 도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보상에 관한 내용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탐구가 가능하다. 임금은 이미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백성과 같은 눈높이로 내려와 윤리적 의(義)를 실천하는 백성을 찾아다니는 선정(善政)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설화 향유자가 생각하는 한 국가를 통치하는 임금의 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행의 목적을 의(義)를 실천하는 백성에게

* 이 논문은 2021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21S1A5B5A17057127).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그 의(義)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상을 이행하고 나면 백성과 임금의 관계는 더 계속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서는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 임금이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 백성을 향한 ‘마음 헤아림’과 ‘마음 씬’이라는, 인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설화 향유층이 임금에게 원했던 것은, 순간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을 판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맺음’과 자신들을 향한 ‘마음 헤아림’,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마음 씬’의 과정을 통해, 타자로서의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이었다. 즉, 설화 향유층이 말하는 임금의 태도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며 상호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적 원칙이 강조되며 그 가치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초월적 가치이며, 이는 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는 공감을 통해 실현된다.

주제어 지배자의 공감, 관계 맺음, 마음 헤아림, 마음 씬, 초월적 가치실현

1. 들어가며

본고는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 포함된 공감의 구조와 양상을 통해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향해 실현하는 초월적 가치와 인간존재의 의미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왕미행설화 또는 숙종설화로 포함되는 설화이다. 왕미행설화 또는 숙종설화는 왕이 능력 있고 선량한 사람을 발천(發闡)하기 위해 평복으로 변장하고 민간에 다닌다는 내용의 설화¹⁾로, 변복하고 미행하는 왕이 숙종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의 여러 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숙종으로

1) 서대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9074>,

접속일자: 2024.01.08.

왕미행설화는, 왕잠설화, 왕암행설화, 또는 변복설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명명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속종설화로 분류되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속종설화의 연구는 조동일(1985)의 이 설화가 민중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루어진 것이라는 연구²⁾를 시작으로 속종설화 전반에 대한 구분과 탐색으로 이루어져 왔다. ‘왜 속종대왕인가’에 대한 논의³⁾, 속종설화의 유형 분류와 전승집단의 전승의식⁴⁾ 그리고 속종설화를 통해 ‘민중의 꿈과 소망이 어떻게 실현되고 좌절되었는가’⁵⁾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속종설화 전반에 대한 구분과 탐색보다는 개별 설화 자체의 서사에 내포된 특이성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구비설화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⁶⁾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화 향유자들이 무엇을 지

2) 조동일은 속종대왕의 미행설화를 ‘속이는 이야기’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인물의 성격과 사건 전개 방식에 근거를 둔 분류체계의 수립과 속이고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200쪽.

3) 홍태환, 『인물전설의 현실인식』, 서울: 민속원, 2000, 17~30쪽.

4) 문병철은 속종대왕 설화의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그 유형과 전승집단의 전승의식을 분류하여논의한 바 있다. 문병철, 「속종대왕설화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명종은 속종과 백성의 관계를 기준으로 기대형(期待形)과 기대 파괴형(破壞形), 기타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체제 순응과 저항의 양면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상을 검토하였다. 유명종, 「속종대왕 미행설화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기현은 속종 설화가 민중의 꿈(소망)을 나타낸 것이라는 관점에서 꿈의 실현과 좌절이 어떻게 형상화 되고, 전승집단의 전승의미를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다. 박기현, 「속종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 박기현, 「구비 군왕설화의 의미전달 방식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야기의 분석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는 ‘인간 연구의 일환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심리학자들의 관심이 인간을 향한다는 것은 문학 연구자들이 텍스트에 관심을 두는 것과 비교된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스토리를 통해 인간이 대상을 인지, 구성, 병행, 재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즉 이들은 인간의 인지구조 또는 행동양식을 살펴기 위해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속적으로 기억하고 또 전승하고 싶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설화에 흐르는 텍스트에 주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⁷⁾

이야기 측면에서 속종설화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임금이 전지적 존재로서 능력 있고 선량한 사람을 목격하고 이에 상반 내리는 경우와 임금이 전지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작품 서사의 중추적 작중인물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속종 설화에 포함되는 <임금 감동시킨 음식> 이야기는 후자에 속하는 경우이다. 특별히 임금이 서사의 중추적인 작중인물로 등장하며 백성과의 관계맺음의 현장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임금의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무엇보다 백성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속종 설화의 작중인물인 임금과 백성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가치와 그 바탕이 되는 공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서는 이야기 전반에 있어서 왕 즉 지배자로서의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지배자의 피지배자를 향한 공감⁸⁾이 강

7) 이는 또한 속종설화 중 한 유형인 <속종대왕과 풍수> 설화를 연구한 홍나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는 개별 설화가 속종암행설화라는 전반과 함께 논의될 때는 개별 설화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다루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속종대왕과 풍수> 설화를 중심으로 다른 공통 소재 설화들을 참고하여 그 안에 내포된 문제제기와 담론의 의의를 밝히는 연구를 펼친 바 있다.

홍나래, 「속종대왕과 풍수」, 『구비문학연구』 50,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41쪽.
 임재해(2018)은 구술문화는 인류사회와 함께 계속되어 온 가장 민주적인 소통문화이므로, 이제는 그 소통주권을 더 창조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고는 그 일환으로 개별구비설화의 작중인물 간 서사에 주목함으로써 설화 향유자들의 소망을 탐구하고 현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를 찾고자 했다. 임재해, 「구비문학의 사회적 소통과 정서적 공감 기능」,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54쪽.

8)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지만, 반복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에 설화향유자들은 지배자의 반복이라는 설정을 통해 왕과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조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왕미행설화 자체가 왕이 번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속임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야기이므로 임금이 그 특수성을 감추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의 특이한 점은 임금이 그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며, 백성 또한 임금이 시는 궁궐에 가셔도 임금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설정이다. 이러한 두 작중인물의 관계를 통해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는 사회적 계층 또는 권력을 벗어난 임금과 백성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임금의 백성을 향한 공감이 실현되는 순간이 존재하며, 또한 공감에 수반되는 이타적 행동인 초월⁹⁾적 가치실현이 나타나게 된다.

박기현(2003)은 숙종 대왕 이야기를 사실(事實)이 아닌 민중의 꿈과 소망을 나타냈다는 관점에서 그 전승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 민중은 설화의 주체(主體)이자 전승 과정에서도 주도적(主導的)인 위치에 있기에, 설화 속에는 그들의 삶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이처럼 구비설화는 사실이 아니며, 또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향유자들의 가치관이 논리정연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유로움이 이야기 문학이라는 틀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적층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에 백성을 공감하는 지배자의 모습이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분명 향유자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의 보편성을 말해준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 가치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즉 지배자란 신화적인 카리스마를 필요로 하면서도 피지배자를 향한 공감과 사랑의 마음이 그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존

것이다.

9) 여기서 초월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현 세계를 넘어서는 인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3장에서 초월적 가치실현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설명하며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10) 박기현(2003), 앞의 논문, 3쪽.

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배자의 공감은 그들의 덕 또는 지혜로 환원되어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크게 백성들을 압도하고 지배자에 대한 신뢰로 인해 더욱 단결된 공동체로 결속될 가능성을 선사한다.

2.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의 전개 양상과 공감의 구조

1)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의 전개 양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는 설화의 중심인물이 임금과 백성이면서 음식을 통해 임금이 백성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이야기이다. [표 1]과 같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의 각편 10개를 찾을 수 있다.¹¹⁾

[표 1]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의 이본 현황

순번	제목	출처 (『대계』/첫 쪽 수)	채록지	제보자
1	임금을 형님이라 부르고 베풀한 사람	3-3 / 410	대강면	박철봉(남 74)
2	서울에서 제일 큰 집 찾기	2-8 / 575	영월읍	김진홍(남 58)
3	숙종대왕과 촌부	8-9 / 661	상동면	서진철(남 47)
4	서울에서 제일 큰 집 찾기	2-8 / 303	영월읍	이춘식(남 64)
5	임금과 허교한 백봉선생	7-10/ 142	봉화읍	박보현(남 55)
6	경종(景宗)임금과 시골선비	4-4 / 639	오천면	김재식(남 76)
7	풍천 노씨의 선조	1-4 / 91	가능동	이항훈(남 71)
8	숙종께 청실배 바치고 된 안동 수좌수	8-4 / 485	일반성면	김명철(남 84)
9	안동 권씨와 숙종대왕	7-11/ 364	효령면	사공용(남 83)
10	민어로 집강(執綱) 베풀	1-5 / 306	양감면	나도성(남 70)

이야기의 각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든 각편의 공통점은 임금을

11)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3, 문학과 치료, 2009, 2533~2538쪽.

우연히 만난 백성이 궁궐로 찾아와 음식으로 임금을 감동시키고 벼슬을 얻는다는 내용이며, 그 경개는 다음과 같다.

- ① 임금이 잠행을 다니다가 어느 총각의 집에 들어간다.
- ② 총각은 임금에게 떡을 대접한다.
- ③ 임금은 나중에 서울에서 제일 큰 집으로 자신을 찾아오라고 한다.
- ④ 총각은 임금에게 줄 떡을 짊어지고 임금을 만나는데 떡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 ⑤ 임금은 총각의 성의를 생각하여 맛있게 먹고 총각에게 벼슬을 내린다.

임금의 역할이 숙종으로 나타나는 경우(자료 순번 1,2,3,5,8,9)가 많으며¹²⁾, 정종(10) 또는 경종(6)과 임금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아조(我朝) 때 한 임금님’(2), 상감님(5) 혹은 내란 때 피난 보낸 왕자(7)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각편에서 임금이 만나게 되는 백성은 ‘없어가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8,2,6)이다. 또는 형편이 넉넉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 노인,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모자란 사람(5,7,1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12) 임금이 숙종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조동일(1985)은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추론했는데, 숙종의 오랜 통치 기간이 그 이유일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영조나 정조 때쯤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을 경우, 임금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변화 때문인 것이라고 보았다. 조동일(1985)의 두 번째 이유는 백성의 임금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즉 임금의 권위가 그 이전만큼 높지 않기에, 백성은 임금을 자신의 어려움을 돌봐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이와는 반대로 숙종의 절대권력을 근거로 본 경우는 홍태한(1990)과 박기현(2003)의 연구가 있다. 홍태한(1990)은 왕의 역할이 숙종으로 자주 그려지는 이유를 민중이 숙종대왕을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그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근거로는 숙종은 현실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가진 존재로, 민중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숙종은 민중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현실의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조동일(1985), 위의 논문, 204~205쪽; 홍태한(1990), 위의 논문, 70~73쪽; 박기현(2003), 위의 논문, 7쪽.

<서울에서 제일 큰 집 찾기>(4) 설화에서의 백성은 유일하게 ‘벌이 천 통’이나 있는 ‘생활 상태’가 좋은 경우이다.

임금과 백성이 만나게 된 상황은 임금이 출장 혹은 순찰 중 우연히 백성을 만나게 경우(1,3,4,5,6,8,9)가 대부분이다. 이는 각편 이야기들의 맥락상 “아조때 한 임금님이 좋은 정치를 펴기 위해서 임금님의 복장을 치우시고 일개 시민의 복장으로 다가 지방 순찰을 가끔 땡기셨는데…”(2)를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임금이 직접 백성을 찾아와서, 타자인 자신을 대접하는 의(義)를 실행한 백성을 보상하는 경우(1,2,3,4,5,6,7,9)도 있고, 또는 백성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임금께 좋은 음식을 갖다 바치러 가는 경우(8,10)가 있다. 이 외에는 내란 때문에 왕자가 피난 내려와 백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7)도 있다.

백성과 임금은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 이를 임금이 제안하는 경우(4)도 있고, 또는 백성이 제안하는 경우(1,2,5)도 있다. 나이와 성씨가 같아서 의형제를 맺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 맺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할 적에 해보이까, 그 참 서로가 그 참 교담(交談)이 되는 기라.’며(5) 서로 대화가 잘 통하여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임금은 백성을 자신의 공간, ‘서울에서 제일 큰 집’으로 초대한다.

임금을 감동시키는 음식으로는 참게와 잘포종(수수 껌부기와 같은 것), 수수모찌, 꿀밤과 꿀, 조밥과 통김치(열무 김치), 스승쌀과 조 인절미, 청실배, 그이젓(게젓) 한단지, 송구떡, 메밀묵, 그리고 민어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는 백성이 암행을 나온 임금에게 대접하고자, 혹은 피난 내려온 어린 왕자를 잘 돌보고자 어려운 처지에 준비한 음식들이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서 백성은 임금에게 똑같은 음식을 두 번 대접한다. 한번은 백성 자신의 공간에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임금의 공간, 즉 궁궐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된다. 자신의 공간을 떠나 백성의 공간으로 들어 온

임금은 배고픔에 궁궐에서 먹던 음식이 아닌 색다른 이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임금이 떠난 이후에 백성은 타자인 임금이 잘 먹던 이 음식들을 다시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제일 큰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음식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쉽게 상하는 음식들이다.

백성들이 사는 곳과 임금이 사는 곳의 거리는 멀다. 이에 이 음식들이 백성이 사는 곳에서 먼 궁궐, 임금의 공간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이 성할 리가 없다. 이렇듯 임금이 백성을 처음 만난 날 먹었던 음식은 그 먼 거리, 긴 시간을 오는 동안 상했거나 ‘그날은 저녁에 그렇게 맛있던 밥이 맛이 없’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임금은 배고픈 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맛없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퍼서 상한 음식을 임금은 외면하지 않고 다 먹는다.

임금을 감동시키고 백성이 얻게 되는 벼슬은 임금이 그 본의로 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직접 백성의 의사를 알아본 후에 주어진다. 백성들이 원하는 벼슬은 집강, 안동존위, 보감관(漕監官), 풍헌, 안동수좌수, 홍산골군수, 백봉선생, 칠원부사 등으로 다양하다. 벼슬이 아니라 썩상담, 갈밭 등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원했던 벼슬, 또는 보상들은 설화의 화자 또는 청자를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리 높은 벼슬들이 아니다.

“...너 소원이 무인지 네 소원을 말해라. 내 소원대루 해 줄테니.....” 하니께 이건 기껏 뭐이 뭐이 - 벼슬이 뭐이 높은 벼슬인지 뭔지 알 택이 있나? 그리닝께 논두렁에 나가서 게 잡느라구 게구녕 쭈신 댐에..... 그때는 그 궁답(宮畜)-나라에 논이 있었거든. 궁답에 이제 그 보-보 지키는 보감관(漕監官)이라는 게 있었거든. 하니께 그 사람이 나와서 맨날 막 호령하는 기거든.(중략) “나 그 재령 보감관-보감관, 그기나 하나 해 좋겠다.”구, 그랬거든. 하니께, “그르냐?”구,

기껏 그기야? 하하하, 뭘 아무거나 하겠다구 해두 다 시켰을텐데 ... “그럼 그래라.”(5) “자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고-?” 물으이께네, 그이 촌놈이라. 그양 촌놈이라. 그래 저 [큰 소리로] 배짱이 적그던 “아이고-, 나는 뭐, 뭐 할 것도 없고 암(아무) 것도...” [청중의 참견은 개의치 않고 계속] 하- 나는 마 고마, 어이, 촌장이라 그마이장, 이 정도를 마, “그걸 날 하나 씨게다고.”(7)

임금은 백성이 ‘뭘 아무거나 하겠다구 해두 다 시켰을텐데,’ 그런데 ‘무에가 소원이냐구 이러키는데 계우 말허능 것이’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들이다. ‘그양 촌놈’이라서 배짱 적게 말허는 소원이다. 또 백성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을 탈피하기 위해 소원을 말하기도 한다.

<임금 감동시킨 설화>의 향유층들이 나타내고 있는 민중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순수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민중에게 주어지는 임금과의 ‘관계 맺음’과 이들을 향한 임금의 ‘마음 헤아림’ 그리고 ‘마음 씬’에 주목하고자 한다. ‘관계 맺음’, ‘마음 헤아림’, 그리고 ‘마음 씬’이 나타나는 순간의 임금의 백성에 대한 공감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초월적 가치실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 나타난 공감의 구조

(1) 구비문학의 작중인물 간 공감

공감은 ‘함께’ 그리고 ‘느낀다’라고 하는 뜻의 감정을 표현하는 합성어로, 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가치를 판단, 선택하게 한다. 우리가 타자를 공감할 때는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타인의 태도 역시 함께 고려의 대상이 된다. 공감은 일종의 판단(judgment)하는 능력이며 기술이다. 따라서 공감이란 개인의 가치판단으로 타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실현하게 되었을 때 개인은 공감에 수반되는 이타적 행동의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한 개인이 타자에 대한 공감으로 이타적 행동의 실천을 한다는 것은 곧 그가 공감을 통한 초월적 가치실현의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문학에서 공감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문학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¹⁴⁾이 들어있고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공감을 바탕으로 한 문학은 한 세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문화와 가치를 형성함으로써 세대를 이어가며 이를 후대에 전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학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인 여러 이유 중 하나이며, 또한 그 속에 내포된 공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문학에서 공감의 대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작중인물, 화자, 작가에 대한 공감이 그것이다. 박치범(2015)은 언어로 형성된 예술인 문학작품은 이들 세 발화 주체를 독자가 타자로 경험할 수 있기에 곧 이들을 공감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⁵⁾ 문학에서 공감의 기능 중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독자의 작중인물이 처한 상황과 행동에의 공감이다. 이는 구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구비문학은 적층문학이기에 화자가 곧 독자이며, 독자가 곧 화자 또는 저자가 될 수 있는 독특한 구조

13) 셸러에 따르면 공감은 타자를 뒤따라 체험하고 그 느낌과 동시에 함께 가치에 참여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타자와 주체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는 타자의 영역에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공감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사랑의 종류와 깊이에 의존한다고 한다.

막스 셸러, 이을상 옮김, 『공감의 본질과 형식』,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86~88쪽.

14) 박치범(2015)에 따르면 공감의 개념은 문학작품 읽기 행위와 유사성을 갖는데,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내면에 관한 관심과 상상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며, 또한 인간의 개별성과 보편성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문학작품 읽기 행위는 공감의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박치범, 『문학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i~ii쪽.

15) 박치범(2015), 위의 논문, 79쪽.

를 지니고 있다. 이에 구비문학 내의 작중인물 간 서사 중 공감을 살펴보는 것은 설화 향유자의 공감에 관한 생각과 소망 또는 후대에 전승하고자 하는 염원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구비문학의 작중인물 간 공감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¹⁶⁾ 고전문학, 특히 구비문학은 현대문학과는 다른 서술방식을 보여주므로 서사 내 작중인물 간 공감에 관한 탐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 내 작중인물 간 공감을 탐구하기에는 인물 내면의 심리나 감정에 관한 세밀한 묘사가 필요하지만, 구비문학에서는 세밀한 감정 및 상황 묘사보다는 전체 이야기의 교훈이나 상징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인지서사학적 접근¹⁷⁾은 구비문학에서 공감의 순간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비문학에서는 작중인물 간의 감정적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의 서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구비문학이 단순한 전통적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사회문화적 현상을 탐구하는 중요한 문학적 자료임을 드러낸다.

16) 최은숙(2015)의 삼국유사 내 이물교훈모티프를 통한 공감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와 고은임(2020)의 『명행정의록』의 남성인물의 공감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한지연(2021a, b)의 작중인물 간 공감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17) 인지서사학은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등의 영향으로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서사이론과 인지과학이 결합된 개념이다. 서사학에서는 텍스트의 서술문법 체계 및 그 표현 방식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면 인지적 서사학은 독서행위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송민정(2013)에 의하면 1950년대부터 심리학에 “마음” 개념이 재등장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 체계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마음뿐 아니라 뇌의 신경처리 과정도 함께 포함하는데, 그것을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으로 한다. 그는 인지서사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어떤 문학적 전통보다 수용 미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인지서사학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과 생성 과정, 그 구조와 기능 등을 더 심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송민정, 「문학 연구의 인지적 전환(1)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 고전서사학과 인지적 서사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1,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3, 395쪽.

(2)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 나타난 공감의 구조

구비설화에서 공감이 나타나는 양상을 한지원(2021a)은 공감의 구조 및 단계로 설명하였다. 그는 현대문학과 달리 구비문학에서는 그 서사의 특성상 공감의 상황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공감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구비문학 내의 공감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여러 방면에서의 다양한 공감에 관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감에 필요한 요소는 공감하는 주체와, 타자, 타자의 감정, 주체로 전이되는 타자의 감정,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이타적 도움¹⁹⁾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구비문학의 간접하고 직관적인 서술 속에서도 공감의 순간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지원(2021a)이 정리한 공감의 구조를 바탕으로 <임금 감동시킨 음식>의 서사 내용을 분석해보면, 먼저 백성이 공감의 주체로서 타자인 임금을 만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때 백성이 만난 타자는 특수성이 배제된 평복 임금이며, 타자의 먼 길 여행함에서 비롯된 피곤함과 배고픔의 감정이 공감의 주체인 백성에게 전이되었을 것이다.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18) 한지원(2021a)의 공감의 단계



한지원,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에 나타나는 공감의 양상과 의미 - 혼사 소재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화회, 2021a, 240쪽.

19)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대니얼 배트슨(Daniel Batson)을 중심으로 1970년부터 새롭게 전개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공감적 정서와 관련하여 타인을 돕는 동기가 이타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공감으로 인해 이타적인 행동의 동기가 생겨나며, 이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강한 동기이다. 단,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71~73쪽.

백성은 자신이 대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최선을 다해 타자를 대접하는 이타적 도움을 실현한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백성이 임금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백성이 가진 모든 것이다. 이에 백성의 행동은 타자에 대한 이타적 도움인 의리(義理),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의 실천(추후 의(義)로 지칭함)으로 생각할 수 있다.²⁰⁾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백성의 평복 임금을 향한 공감의 구조

공감자(주체)	타자	전이된 감정	이타적 도움
백성	평복을 한 임금	배고픔	어려운 형편이지만 음식을 대접함 의(義)의 실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임금감동시킨 음식>에서의 임금은 윤리적 가치실현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는 유형이다. [표 1]에서는 임금이 배고픈 타자의 역할이지만, 이제 의(義)를 실천한 백성을 보상하게 되는 임금의 역할은 백성을 공감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로 전환된다. 이때 임금이 맞이하는 타자는 백성이다. 백성은 어렵게 사는 처지이다. 그 상황에서 임금이 공감의 주체로써, 백성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타자를 대접한다는 행동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임금이 실행한 이타적 도움은 백성과의 ‘관계 맺음’이다.([표 2]참조)

[표 2] 임금의 백성을 향한 공감의 구조 1

공감자(주체)	타자	전이된 감정	이타적 도움
임금	백성	어려운 형편가운데서도 의(義)를 실현하는 마음	관계 맺음 (의형제 맺음)

20) 박기현(2003)이 왕미행설화, 즉 숙종설화를 통해서 민중이 벼슬에 오르고자 하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꼽은 학식, 효행, 충성심, 이타심, 지혜 등 중에 충성심(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이타심(임금인 것을 모르고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형제는 의(義)로 맺은 형제로서, 서사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특별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는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약속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친형제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동질성이 극대화된 관계라고 한다면, 의형제란 인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친형제와 비슷한 이 동질성을 추구하는 관계이다.²¹⁾

일반적으로 설화에서 의형제를 맺는 결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거나 갈등을 해결²²⁾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 감동시킨 설화〉의 서사에서는 이 의형제를 맺는 것에 대한 뚜렷한 공동의 목표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의형제를 맺는 이유도 그저 성씨가 같고 교감이 잘 되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임금이 백성과 의형제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초월한 백성과의 인간적 연대감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과의 ‘관계 맺음’은 삶이 고달픈 백성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대한 신뢰와 정서적 안정 등의 긍정적 역할로 볼 수 있기에 이를 임금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타적 도움으로 볼 수 있다. 혹은 그의 공감론에서 공감의 주체와 타자 사이의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감이 이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임금 감동시킨 설화〉의 이러한 의형제로 ‘관계 맺음’은 이후 임금과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상황에 대해 근거를 제공하므로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서 중요한 화소이다.

이 설화들에서는 그저 임금이 백성의 의(義)의 실현에 대해 보상하고

21) 김준희, 「구비설화에 나타난 의형제 결의와 의절 서사 연구」, 『고전문학연구』 60, 한국고전문학회, 2021, 156쪽.

22) 김준희(2021)는 의형제의 결의를 대표하는 설화로써,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특재 있는 의형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도둑과 의형제 맺은 사람>, <간부와 의형제 맺은 사람>을 들고 있다. 김준희(2021), 위의 논문, 158, 162~163쪽.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자신의 공간으로 백성을 초대한다는 서사를 통해 설화 향유자들이 임금과 백성 간의 깊은 ‘관계 맺음’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임금의 백성을 향한 공감의 구조 2

공감자(주체)	타자	전이된 감정	이타적 도움
임금	백성	의형제를 맺은 형에게 형이 좋아했던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마음 헤아림 (상한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함)

서사의 첫 부분에 임금이 백성의 공간에서 백성에게 대접받은 음식은 그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배경을 임금의 공간인 ‘서울에서 가장 큰 집’인 궁궐로 옮겼을 때는 백성이 준비해 온 음식은 임금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 음식은 상했거나 맛이 없는 음식이다. 이를 알면서도 백성 앞에서 임금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임금은 백성의 마음을 읽었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표현이다. 이에 임금에게 전이된 감정은 [표 3]과 같이 백성이 어려운 형편에도 의형제이지만 타자인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임금은 그 정성을 외면하지 않고, 이타적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먼 길 음식을 준비해 온 ‘마음 헤아림’이다. 임금은 상했지만 맛있다고 표현하며 먹은 그 음식을 심지어 다른 신하들에게도 권한다. 임금은 강제로 더 많은 신하를 자신과 같은 생각인 것처럼 만들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²³⁾

배고픈 타자가 아닌 상태에서 임금이 백성이 가져온 상한 음식 또는 맛 없는 음식을 먹고, 또 이에 대한 상을 내린다는 것은 임금의 백성에 대한 ‘마음 헤아림’으로, 설화 향유층의 또 다른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3)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informational conformity)로써, 동조는 한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확신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표 4] 임금의 백성을 향한 공감의 구조 3

공감자(주체)	타자	전이된 감정	이타적 도움
임금	백성	어려운 처지와 의형제 맺은 형을 생각하는 마음	마음 헤아림, 마음 씀 (벼슬의 하사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도움)

<임금 감동시킨 음식>에서도 숙종설화의 공통적인 화소인 처지가 어려운 백성에게 벼슬이나 상을 내리는 서사가 나타난다. 임금은 백성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의형제이지만 타자인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공감하고 백성의 형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타적 도움으로 벼슬을 하사한다.([표 4] 참조). 다른 숙종설화와 비교했을 때, 이 설화들의 특이성으로는, 벼슬을 하사하고 임금의 역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금은 백성이 처음 말아서 하게 되는 그 벼슬을 잘할 수 있도록 조력자를 보내주기도 한다. 그리고 백성이 그 일이 익숙해진 후에는, 임금은 백성이 더 큰 임무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승진을 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임금 감동시킨 음식>에서는 임금의 백성을 향한 ‘마음 헤아림’과 ‘마음 씀’이 친형제의 형처럼 계속 진행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공감은 나와 상대방을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유대와 소통의 수단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능력이기도 하고 때로는 생리적이고 본능에 가까운 선천적 능력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속해 온 능력이며 또한 기술이다. 이에 향유자들은 전승되는 구비설화를 통해 민중들이 공감의 능력을 계발하고 인간관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꿈꾸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상대방에게 공감함으로 인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그 개인이 생각하는 상대방, 즉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는 개인의 지위나 물질적 조건을 넘어 인간적 연결과 상호 존중에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는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적 원칙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치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 중에 공감은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이에 이어지는 장에서는 공감이 바탕이 되는 초월적 가치 실현의 존재로서의 인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공감을 바탕으로 한 초월적 가치실현의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정신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외부로부터 강제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자유의지²⁴⁾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의 이러한 능력은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인간을 스스로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생각한 것을 뒷받침한다. 요약하면 정신적 활동을 하는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계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짐으로써, 원래 한정되어 있던 자신의 삶의 범위를 초월²⁵⁾하여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²⁶⁾ 초월은 개인의 경험

24) 이러한 자유의지의 개념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많은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 체계에서 인간의 행위, 결정, 그리고 자유를 대상으로 심오하게 논의되어 오기도 했다. 본 고에서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외부 세력의 강제가 없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정의한다.

25) ‘인간은 초월의 존재이다.’라는 것은 카톨릭 신학자 칼라너(Karl Rahner, 1904-1984)의 종교적 인간학적 핵심 통찰 중 하나이다. 주희(朱熹, 1130-1200) 역시 성리학의 전통에서 ‘리(理)’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과 자연, 우주가 하나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초월이 나타남을 설명한다. 두 사상가 모두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초월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초월이란 것이 꼭 종교 또는 신성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 심리학의 기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최대 가능성을 자기실현으로 나타낸 매슬로우가 주축이 되는 자기초월 심리학이 그것이다. 매슬로우는 인간 가능성의 최대치라고 제시한 자기실현의 다

또는 인식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주로 신(神), 영(靈), 또는 종교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르트르가 「자아의 초월성」에서 강조하듯이 인간은 스스로 의식의 지향성(intentionnalité)을 통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다.²⁷⁾ 초월이 신의 영역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라면 그 의미가 비교적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서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주목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초월은 자기를 대상화, 또는 객관화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의미는 자신을 인식, 반성 및 탐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²⁸⁾ 그런데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판단을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행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행동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판단이다.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창조적 활동에는 실현되어야 할 가치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 나타나는 그 가치는 ‘인간’이다.

왕미행 설화에서 임금이 미행하는 이유는,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회를 갖지 못하는 백성을 찾아내기 위한 경우도 있

음의 단계를 자기초월의 체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초월이라는 개념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소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성에 근거를 둔 이성과 논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월이란 인간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장발달 및 성숙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상엽, 「코칭과 자아초월의 만남을 위한 小考」, 『교육컨설팅코칭연구』 특별호,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 2023, 29~30쪽.

26) 인간의 의식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세계를 향해 개방되어 있는데, 이러한 능력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에 꼭 적합한 영역을 넘어서 더 멀리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금교영, 『막스 쉐러의 가치철학- 가치의 현상학』, 한국학술정보(주), 2003, 139쪽.

27) J-P 사르트르, 현대유럽사상연구회 역, 『자아의 초월성』, 민음사, 2017, 32쪽.

28) 인간은 초월을 통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제한된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도 무한한 영원을 꿈꾸며 또한 체험하지 못한 우주라는 무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다.

박성현,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심포지움 학술대회자료」, 하계 ICT 융합 공동학술대회, 2015, 51쪽.

지만, 특별히 유교와 성리학을 받아들인 국가에서 강조하는 충(忠), 효(孝), 열(烈), 의(義)와 같은 인(仁)을 예(禮)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서 보상하기 위함이다.²⁹⁾ 이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국가라는 틀 속에서 예(禮)를 통해 표현되는 인(仁) 또는 덕(德)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백성에게 도덕적 가치의 실천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 속 백성은 음식으로 국가가 원하는 윤리 즉 의(義) 또는 충(忠)을 실천하려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백성의 윤리적 가치실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설정은 백성이 가난하고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힘겹다는 것이다. 설화 화자들의 목소리는, 백성의 형편으로는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타자를 대접한다는 것이 경제적, 또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박씨 한 분이 있어. 하도야 문 살아서, 애래기, 이놈우, 객지에 나가서 한 번 살아 본다고, 저 경북 안동(安東)쯤 가서 고마 간께네 거어(거기) 마, 객지에 나가 없어(대계주석: 객지에 나가 구차하게 살았다는 말이다.) (8)

그런데도 그러한 백성이 자신들의 공간에 찾아온 타자를 성심껏 대접하고 돌본다는 행위는 그가 자신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찾고,

29) 김상래(2006)에 의하면 공자가 제시한 인(仁) 과 예(禮)라는 개념 중에서 인(仁)은 도덕윤리와, 예(禮)는 행위윤리와 가깝다고 한다. 즉 인(仁)이 유학의 기본적인 도덕 내용이라면, 예(禮)는 그 실천 행위 또는 형식에 관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자의 학설에서 '내면화된 도덕성으로서의 인(仁)'은 '외면화된 형식의 예(禮)'로 발현된다는 것은 인(仁)과 예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임을 주목했다. 김상래, 「仁과 禮에 대한 연구 - [論語]를 중심으로」, 『은지논총』 15, 은지학회, 2006, 331쪽.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와 윤리를 실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자유, 선택, 그리고 책임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설화 속 백성은 민중을 대표한다. 즉 설화 속 백성의 행동을 통해, 설화 향유자인 민중들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움의 가치-도움이 필요한 타자를 외면하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義)’의 가치실현은 잠행하는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보상을 내리게 되는 행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백성의 윤리적 가치실현은 유교 국가의 백성된 도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보상에 관한 내용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탐구가 가능하다. 임금은 이미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백성과 같은 눈높이로 내려와 윤리적 의(義)를 실천하는 백성을 찾아다니는 선정(善政)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설화 향유자가 생각하는 한 국가를 통치하는 임금의 도리이다. 이러한 미행의 목적을 의(義)를 실천하는 백성에게 그 의(義)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상이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사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고 나면 백성과 임금의 관계는 더 계속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서는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 임금이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 백성을 향한 ‘마음 헤아림’과 ‘마음 씬’이라는, 인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즉 임금이 백성을 위해 선택한 것이 물질적인 보상 이외에도 인간적 가치에 중점을 둔 둘 간의 친밀한 관계적인 보상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여보시오, 당신 올해 나이가 얼맵니까?”

이카이,

“그래 내가 나이가 인제 얼맵니다.”

또 그 주인도, 주인 역시 뭐냐 하면,

“나는 나이 얼맙니다.”

“그래요.”

나이가 똑 같으면. 그래,

“당신은 생일 언제 났소?”

“그 생일은 나는 언젠입니다.”

“그 시(時)가 언젠니까?”

...(중략) 옛날 어른들은 이 얘기 할 때 뭐냐 하며는, 전부 보며는 그 머 띠를 묻고 고담(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며는 생일을 묻고 고담에 인제 시를 묻는기라. 그기 옛 통상적이라 그계.(중략) (5)

그래, 저녁 대접을 먹고서 이름을 물어 보니 성은 김씨요 나이를 보니까 한 동갑이거든. 숙종대왕이 생일을 물으니 한 달이요 나이를 물으니 한 달이거든.

숙종대왕이,

“생년 월일이 똑 같으니, 우리 형제하고 지내세.”

“그러세.” (4)

“어디 계신데?”

“내 서울 있네.”

아 고만,

“의형제 정합시다.”

“아 그 좋지.”(1)

설화 내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는 백성과 임금의 의형제 관계를 맺는 서사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둘 사이의 의형제를 맺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임금인 경우도 있고 백성인 경우도 있지만, 이 제안에 대해 임금은 ‘그 좋지’라며 의형제 결성을 찬성한다. 임금과 백성이 수평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외형적인 이유는 특수한 것들이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생일이 같기에, 동성동본이기에 등의

통상적인 이유이며, 또한 ‘교담(交談)’이 잘 되기에 의형제를 맺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친밀한 ‘관계 맺음’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같은 가치를 가진 인간이어서이다. 이러한 가치가 상이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는 설화 속의 임금이 그저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는 도리, 즉 의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 맺음’ 속에서의 돌봄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서는 임금이라는 특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백성과 임금의 ‘관계 맺음’이 계속된다.

“저게, [큰 소리로] 자네 한 번 놀러 한 번 오게!” (중략)

“젤- 올 때 고마, 저 그, 서울 와 가주고 제일 큰 집을 찾오마 된다. 대궐로 가서 큰 집 찾아 왔나.” (5)

임금은 백성을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하게 되는데, 최대한 임금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서사가 진행된다. 임금은 백성에게 ‘서울에서 가장 큰 집’으로 자신을 찾아오라고 한다. 마치 친한 형이 동생을 집으로 초대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러한 서사는 향유층들이 임금과 백성의 ‘관계 맺음’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義)로 맺은 형제와의 친분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형제의 공간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루어지고, 또한 임금의 백성을 향한 돌봄도 계속된다.

서로 임금님이 앉아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이 사람이 한단 소리가,

“아, 형님께 집엔 웬 거 ‘빨난 도둑놈’이 저렇게 많느냐.”고 말이지. [조사자 : 빨난 도둑놈?] 예, 옛날에 대관들 사모 관대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제보자가 머리 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빨이 달렸거든. (중략)

임금님이 대번(바로, 금방) 듣고 대번 그걸 짐작하셨지. 하고는 게 임금님이 웃으시면서 말이지,

“게 우리 집에는 참, 부자로 잘 산단 말이지. 그래서 ‘빨난 도둑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많고, 너 마침 잘 왔으니까 여러 날 좀 놀다 가거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도 그저 임금님이 대접을 이렇게 자꾸 사자를 보내서 대접을 놀랍게 하고, 그저 저녁으로 놀러 와서 이야기 하곤 하는데, 이건 임금님이라는게 자리가 우뚝 자린 지도 모르고 임금의 존재를 몰라서 그냥 ‘임금 형님’이라고 막 부르르고 말여. (2)

<서울에서 가장 큰 집 찾기(2)> 설화의 서사에서 백성은 특수성이 감추어진 임금을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인 궁궐에 가서도 알지 못하며, 임금은 이런 동생을 극진히 대접한다. 각편들 중에는 임금인 줄 알고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궁궐에 처음 온 백성은 궁궐이 어떤 곳인지도,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 백성에게 임금은 자신이 대접한 음식을 맛나게 잘 먹어주던 형님일 뿐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은 백성이 자신의 공간으로 가져온 음식에 대해서 백성의 자신을 향한 마음에 그 가치를 두고 이를 헤아려주는 모습을 보인다. 백성이 의형제 맺은 형을 생각해서 가져온 음식이 상해서, 또는 어떤 이유로든 맛이 없지만,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의 만남을 위해 꼭 필요했던 ‘임금 감동시킨 음식’보다 이제는 둘 간의 관계인 것이다.

“형님 떡 잡수시유.” 이래. 이래구 그 놈을 끄네. 그 참 숙중대왕두 대인이거든. [청중: 아 대인이구 말구.] (중략) [청중: 그 성의가 고맙지.] 그걸 다 잡숫는 다 말야. 보니까 벌써 곱팡이가 폼. 서울 올라가느라구 메칠 걸렸지, 그 옥에 가 하룻동안 옥 봤지. (1)

이제 음식은 임금을 감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백성을

향한 ‘마음 헤아림’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임금은 대인이라, 백성, 즉 동생의 성의가 고마워서 상한 떡을 다 먹는다. 이는 임금의 백성을 향한 ‘마음 헤아림’이다. 설화 향유자들이 생각하는 대인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타자의 정성을 생각할 때 자신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는 마음이다. 임금의 건강 상태는 「일기」에 남겨 늘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임금이 상한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설화적 흥미 요소로 넘기기에 단순하지 않다.

“여 저 이 저 이 사람들이 다 손님일세. 한 개씩 골고루 드리게.”

아 이놈의 조신들이 상감이 잡혔는데 안 먹을 수도 없구 그 놈을 한 개씩 돌려주니 먹어보니 씨겅구 다 씹은 놈을 주시 죽을 욕을 봤단 말야. [청중: 먹긴 먹어야 되어.] 먹긴 먹어.

상감이 잡혔는데 아나 먹을 순 없고 먹었다. (1)

위의 서사에서 임금은 불편함을 표시하지 않고 “아, 그 일미로구나.” [청중들 :모두 웃는다.] (9) 하고 먹는 모습이지만, 이는 상한 떡을 먹은 조신들의 행동과는 사뭇 다르게 구별된다. 임금과 조신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임금에게 상한 음식의 가치는 백성의 정성인 반면 조신들에게 그 음식의 가치는 그저 먹기 힘든 상한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금은 백성에게 벼슬 또는 땅을 내릴 때도 그 백성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나타난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형이어도 자신의 임의대로 백성에게 좋은 벼슬 또는 땅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핀다는 것이 임금의 ‘마음 헤아림’을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다. 백성은 ‘배짱이 적은 촌놈’(5)이고 세상 이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백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바로 임금으로서 선

취해야 할 가치라는 향유자들의 생각인 것이다. <서울에서 제일 큰 집 찾기(2)> 설화에서의 임금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백성이 원하는 땅을 하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논 삼대 칠짜리 열 마지기’를 부치게 된 백성은, 이 자체로 기쁘지만, 임금의 생각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못난 놈이 없고, 배우질 못하고 듣고 본 게 읍기(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이라고 아주 못난 건 아니란 말여. 참 마음씨고 착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좀 출세를 시켜 줘야 하겠단 말여. (중략) 이 사람을 대신 그 고을에 원을 시켰어. 시킨들 뭘 알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뭘, (중략) 그래 임금님이 특별히 서울에서 아주 이런 명관을 하나 내려 보냈어. (중략) 이 사람을 자꾸 가르쳤어. 자꾸 가르쳐 삼년을 가르쳐 노니까 그제서는 맥힐 게(막힐 것) 없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그 고을에 원이 됐단 말이야.(중략) 아주 이 사람이 [조사자 : 명관이로구만...] 선정을 한단 말이야. 아주 착하게 그 고을을 다스려 나가고 하니까, 그래 그 후에 다시 승진이 돼서 감사까지 했대요. (2)

임금은 백성에게 그저 벼슬만을 주고, 땅만을 주는 것으로 보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조력자를 붙여주고, 또 그의 능력을 끝까지 지켜보는 등, 그 사람의 상황을 끝까지 ‘마음 씌’으로 살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임금은 백성의 능력을, 그의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화 향유층이 말하는 임금의 태도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며 상호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적 원칙이 강조되며 그 가치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실현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권력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간존재의 기본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상징하며, 설화 향유층에게 이는 보다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이었던 것이다.

셀러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가 객관적인 계층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가치의 계층성이란 높은 가치는 낮은 가치보다 우선하며,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영적인 가치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중심적 욕구를 넘어서 공동의 선, 영적 성취, 혹은 인류 공동의 더 높은 이상을 지향하는 가치는 초월적 가치이며 개인의 자기 초월은 전형적인 인간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의 임금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정되어 있던 자신의 삶의 범위를 초월하여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인간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개인의 지위나 물질적 조건이 아닌, 인간적 연결과 상호 존중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공감이 중요한 수단이다. 셀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³⁰⁾적 유대는 양측이 서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러한 감정적 유대는 공감, 애정, 존중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다.³¹⁾ 초월적 가치를 감지하고 실현하는 것은 바로 감정, 특히 공감의 작용으로서 가능하다. 이렇듯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 온 역사 속에서 문학은 공감을 바탕으로 창조되고 또한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도 한다.

30) 감정이란 각 개인을 나타내는 고유의 정체성이다. 감정은 솔직하고 진실하다는 측면에서 과학이다. 진실하다는 감정은 몸으로, 그 신호를 느낌을 통해 생생히 전달한다. 감정은 사람을 사람하게 하는 생생함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인 '성(性)'자를 살펴보면, '마음(心)'이 '살아있음(生)'을 나타낸다. 그 성이 발현으로써 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김성실, 「인문학적 도시의 핵심원리로서의 '공감(共感)'에 관한 연구 - 맹자(孟子)와 퇴계(退溪)의 감정이해방식을 중심으로」,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315쪽.

31) 인간의 정신 작용 중 감정 작용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작용들보다도 더 일차적이고 근원적이다.

김교영(2003), 앞의 책, 135쪽.

4. 나오며

<임금 감동시킨 음식> 이야기는 왕미행설화의 대표적인 속중설화 중 하나이다. 속중설화의 공통적인 주제로 볼 수 있는 ‘왕이 능력 있고 선량한 사람을 발천(發闡)하기 위해 평복으로 변장하고 민간에 다닌다’라는 내용의 설화이다. 본 고에서는 속중설화라는 전반적인 분류보다는 개별 설화 내의 서사를 살펴봄으로써 설화 향유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후대에 전하고자 소망하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의 서사에는 지배자의 피지배자를 향한 공감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를 공감의 구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야기 속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맺음’, 지배자의 피지배자를 향한 ‘마음 헤아림’과 ‘마음 씬’이 강조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모두 윤리적 가치를 실현한 피지배자에게 주어지는 피지배자의 보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보상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한 초월적인 가치실현을 내포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는 공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여기며, 또한 이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인 것이다. 특별히 ‘왜 속중임금인가’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밝혔듯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왕으로 기억되는 존재가 백성들에 대해 인간적 가치를 부여하고 초월적 가치실현을 하는 것은 설화 향유자들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단순히 힘의 논리나 지위의 상징을 넘어선,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화 향유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며 후대에는 후손들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소망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9074>, 접속일자: 2024.01.08.
- 고은인, 「한글장편소설 남성인물의 공감에 대하여 - 『명행정의록』의 ‘위천유’를 주목하며 -」, 『한국문학논총』 84, 한국문학회, 2020, 171~210쪽.
- 금교영, 『막스 쉐러의 가치철학- 가치의 현상학』,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3, 1~284쪽.
- 김상래, 「仁과 禮에 대한 연구 - [論語]를 중심으로」, 『은지논총』 15, 온지학회, 2006, 327~358쪽.
- 김성실, 「인문학적 도시의 핵심원리로서의 ‘공감(共感)’에 관한 연구 - 맹자(孟子)와 퇴계(退溪)의 감정이해방식을 중심으로」,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 2016, 299~325쪽.
- 김준희, 「구비설화에 나타난 의형제 결의와 의절 서사 연구」, 『고전문학연구』 60, 한국고전문학회, 2021, 155~182쪽.
- 문병철, 「숙종대왕설화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88쪽.
- 박기현, 「구비 군왕설화의 의미전달 방식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79쪽.
- 박기현, 「숙종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95쪽.
- 박성현,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심포지움 학술대회자료」, 하계 ICT 융합 공동학술대회, 2015, 51~60쪽.
-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2004, 1~462쪽.
- 송민정, 「문학 연구의 인지적 전환(1)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 고전서사학과 인지적 서사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1, 한국독일언어학회, 2013, 387~413쪽.
- 유명중, 「숙종대왕 미행설화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81쪽.
- 이상엽, 「코칭과 자아초월의 만남을 위한 小考」, 『교육컨설팅코칭연구』 특별호,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 2023, 25~42쪽.
- 이영경, 「인간의 본질 - 막스 쉐러의 철학적 인간 이해」, 『지성과 창조』 8, 2005, 185~203쪽.
- 임재해, 「구비문학의 사회적 소통과 정서적 공감 기능」, 『구비문학연구』 49, 한

- 국구비문학회, 2018, 5~58쪽.
-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서울: 정음사, 1985, 1~343쪽.
- 최은숙, 「『삼국유사』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2015, 189~213쪽.
- 한지원,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에 나타나는 공감의 양상과 의미 - 혼사 소재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2021a, 233~265쪽.
- 한지원, 「설화에 나타난 작중인물 간 공감의 형태와 장소에 관한 고찰: 카이로스적 의미로서의 공감의 시공간」, 『한국고전연구』 54,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b, 133~166쪽.
- 홍나래, 「<숙종대왕과 풍수> 설화 속 인물들의 정립(鼎立) 관계를 통해 본 자연 생명의 이치와 공동」, 『구비문학연구』 50, 한국구비문학회, 2020, 39~62쪽.
- 홍태한, 「설화에 나타난 이상적인 세계관」, 『밝은사회연구』 15, 경희대학교 밝은사회문제연구소, 1990, 143~155쪽.
- 홍태한, 『인물전설의 현실인식』, 서울: 민속원, 2000, 1~202쪽.
- B 문단, 허재윤 역,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96, 1~332쪽.
- J-P 사르트르, 현대유럽사상연구회 역, 『자아의 초월성』, 민음사, 2017, 1~180쪽.
- M 셸러, 이을상 역, 『공감의 본질과 형식』,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1~219쪽.

ABSTRACT

The Aspects of the Ruler's Empathy
and the Anthropological Meaning in Oral Folktales,
〈food that moved the king〉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Transcendental Values Based on Empathy

Han, Ji-won

This study explores the empathy of rulers towards their subjects and the transcendental values and meaning of human existence realized through such empathy, as illustrated in the oral folktale "The Food That Moved the King." This stor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ukjong tales, a subset of folktales where the king, in disguise, mingles with the common people to identify and reward virtuous and capable individuals. However, rather than focusing on the overarching concept of the Sukjong tales, this study examines the narrative within the individual folktale to understand the meanings that the tale's enjoyers hoped to pass down to future generations.

While the ethical behavior of the people can be explained as the duty of subjects in a Confucian state, the rewards given by the king require a different perspective. The king, descending from his high position to the same level as the people, practices benevolent governance by seeking out and rewarding those who embody ethical virtues. This reflects the ruler's duty as envisioned by the tale's enjoyers. However, if the purpose of the king's incognito visits is simply to reward ethical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s would not need to continue after the reward is given.

In the folktale "The Food That Moved the King," however, beyond material rewards, there is a greater emphasis on the king's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his consideration for their feelings ("maeum hea-rim"), and his thoughtful attention ("maeum sseum"). The tale's

enjoyers did not want the king to judge them based on fleeting, superficial impressions but to recognize their worth as individuals through a process of intimate connection, consideration, and thoughtful attention. This reflects the philosophical principle that all humans possess dignity and deserve mutual respect, a value that can be realized through free will. This value is transcendental, realized by humans embodying divine essence, and it is achieved through empathy.

Key Words Empathy of the ruler, Building relationships, Consideration for feelings, Thoughtful attention, Realization of transcendental values

논문투고일: 2024.07.21.
심사완료일: 2024.08.06
게재확정일: 2024.08.08.